

아시아의 미래와 한국경제

Changyong Rhee
Chief Economist
Asian Development Bank
June 4, 2012

4 June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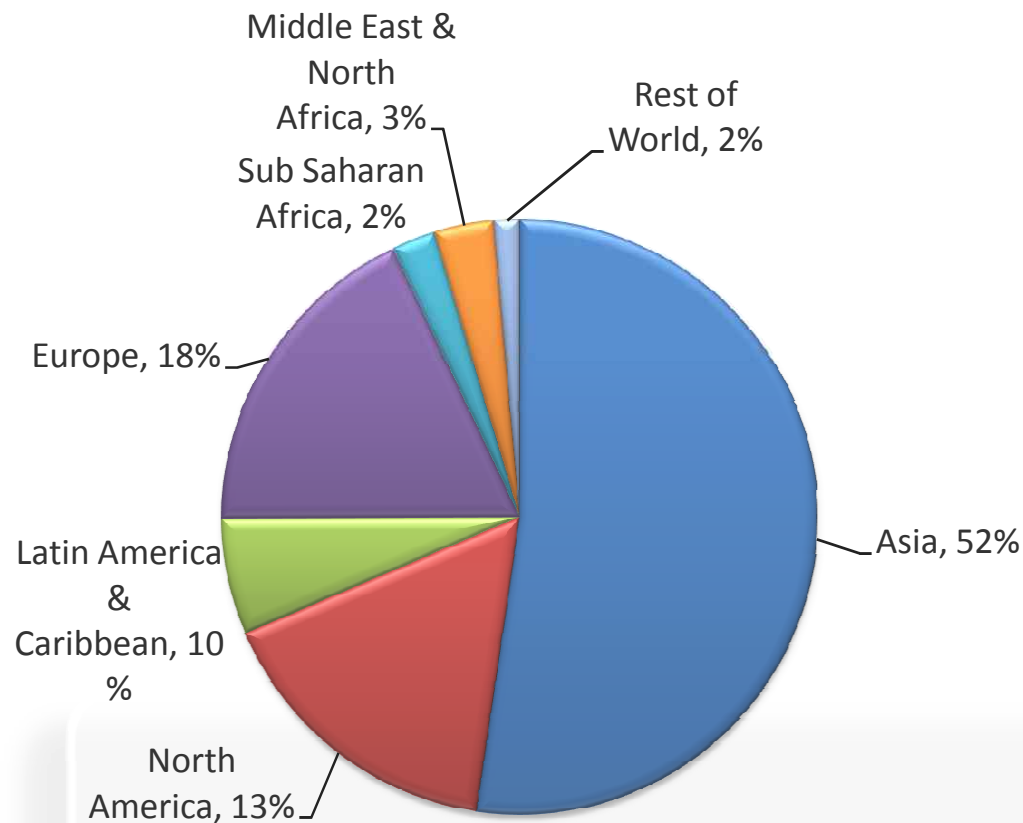


아시아의 부상 (기존발표 자료 요약)

- G2로서의 중국, 2030년 세계 3위 경제대국 인도
- 전세계 경제성장의 축 (선진국의 침체 가능성과 대조)
- 2030년 전세계 인구의 54%, 다양한 연령구조
- 중산층 확대, 전세계 최대 소비시장, 인프라투자 시장
- 경제통합, One Asia의 진전 (FTA, Financial Integration, 인적교류 확대, 관광)
- 에너지 수요 급증과 천연자원 역외의존도 심화
- 도시화, 환경오염, 자연재해 등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
- 빈부격차의 확대, 지배구조 개선요구

THE ASIAN CENTURY: ASIA 2050

Asian Century Scenario: 2050



GDP at market exchange rate (Trillion)	
World	333
Asia	174
United States	38
GDP per capita at constant PPP	
World	37,300
Asia	40,800
United States	94,900

Questions

1. 아시아 내 지역별 특징은?
2. 낙관적 견해 – 위협 요인은?
3.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은?

지역별 특징 I (향후 10년)

- **중국: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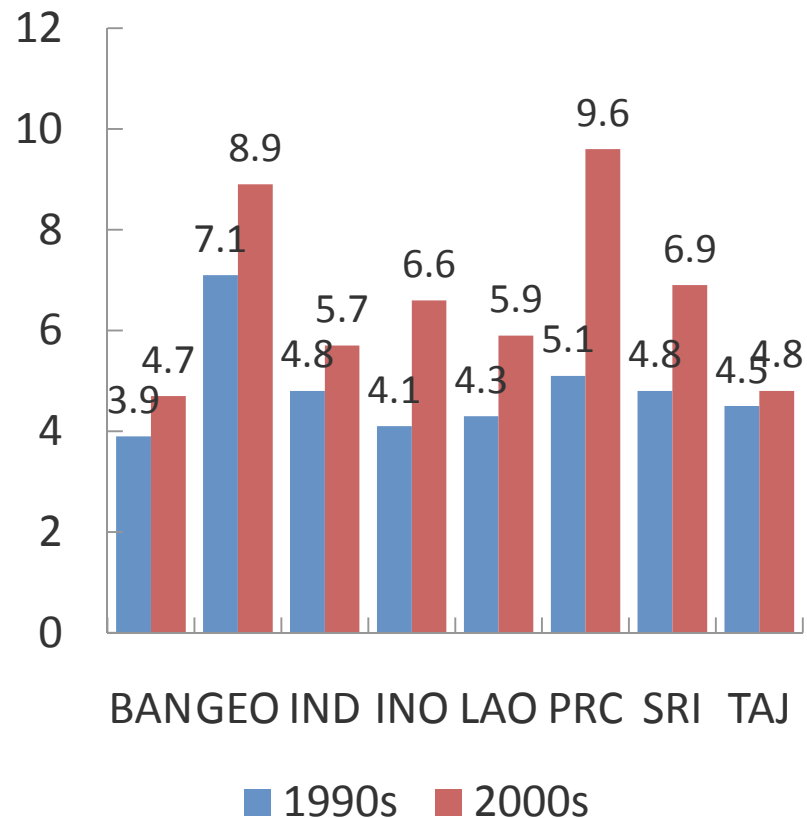
- 전세계 생산기지에서 소비 및 투자 축으로의 변화
- 제조업에서 아시아의 금융대국으로
- 수출중심에서 내수 확대, 연안에서 내륙으로
-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과제
- Rising Inequality에 대한 대처

- **인도:**

-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
- 개혁을 막는 legal system, 분권화된 의사결정 극복 과제

아시아의 고성장과 소득분배

Quintile ratios, countries with rising inequality



Source: ADO 2012

▶ Gini coefficient worsened from:

▶ 32 to 43 in the People's Republic of China

▶ 33 to 37 in India

▶ 29 to 39 in Indonesia

(소비자료를 근거로 한 수치)

▶ Taking developing Asia as a single unit, its Gini coefficient went from 39 to 46

지역별 특징 II (향후 10년)

- **ASEAN**

- 새로운 성장축 (Return of FDI from China?)
- 2015년 경제통합의 진전
-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개발모형
(Indonesia, Myanmar, Vietnam, Philippines ..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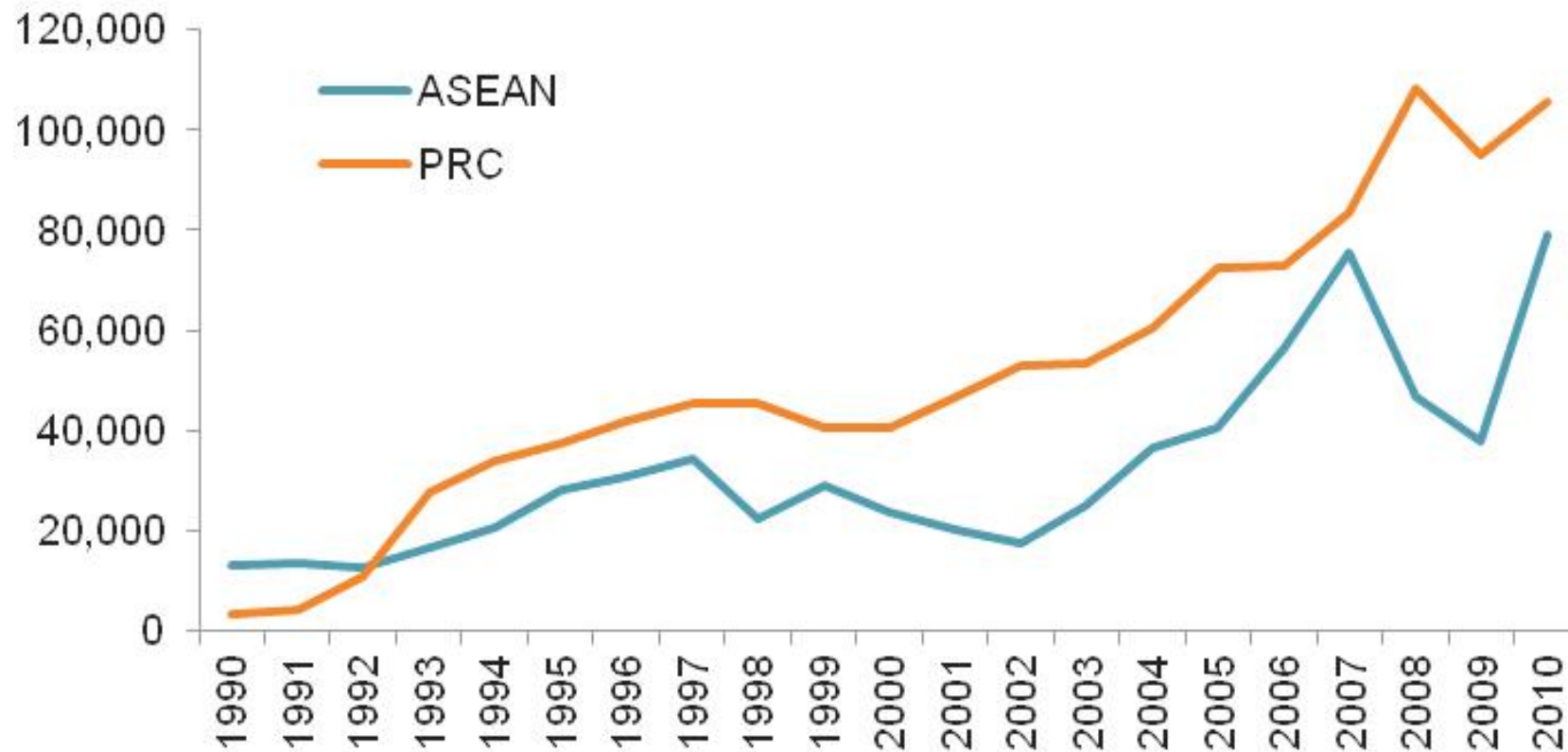
- **Central Asia**

- 러시아 권으로의 integration 가속화
- 풍부한 천연자원, 그러나 과소 인구
- 북한 개방과 함께 달라질 수 있는 중요성

외국인 직접투자 China and ASEAN

World Inward FDI Flows to ASEAN and PR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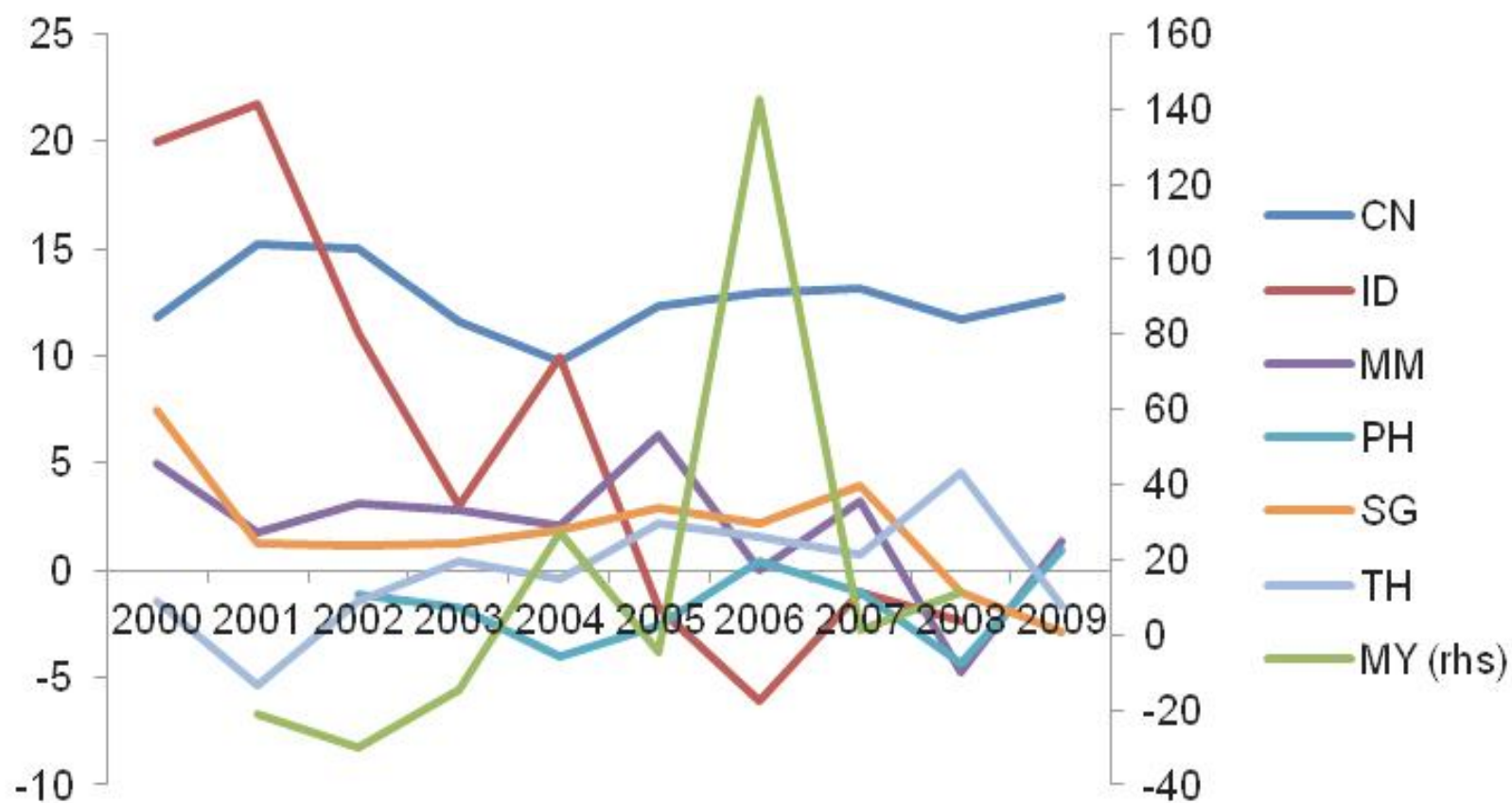
In millions of US dollars



Source: UNCTAD

실질임금 상승률

Growth Rate of Real Wages



Source: Staff calculation using data from IL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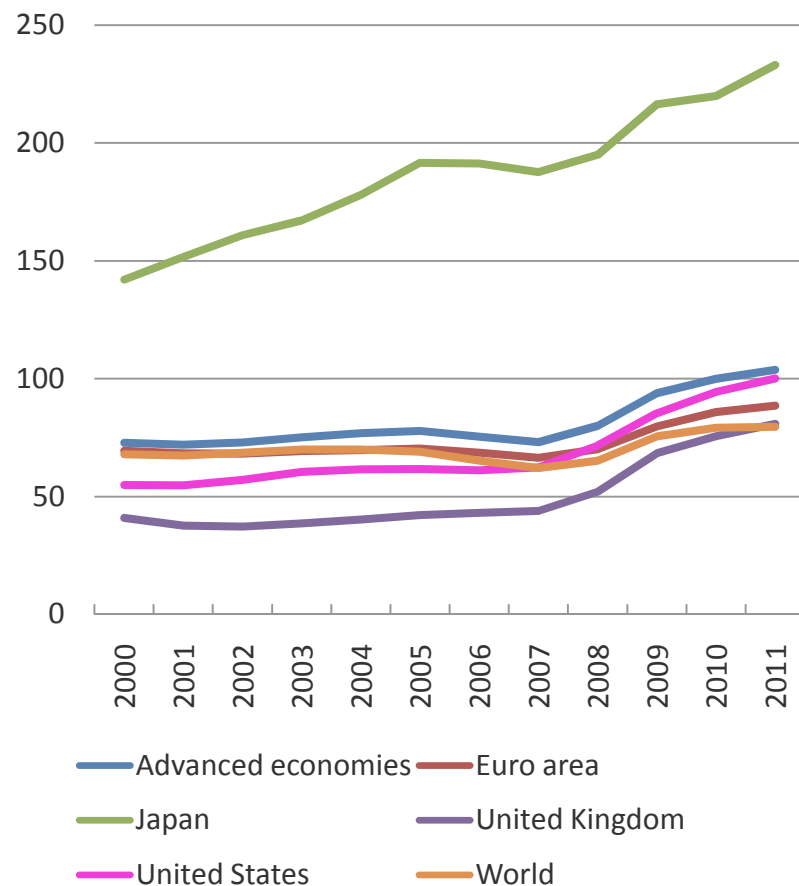
지역별 특징 III (향후 10년)

- **일본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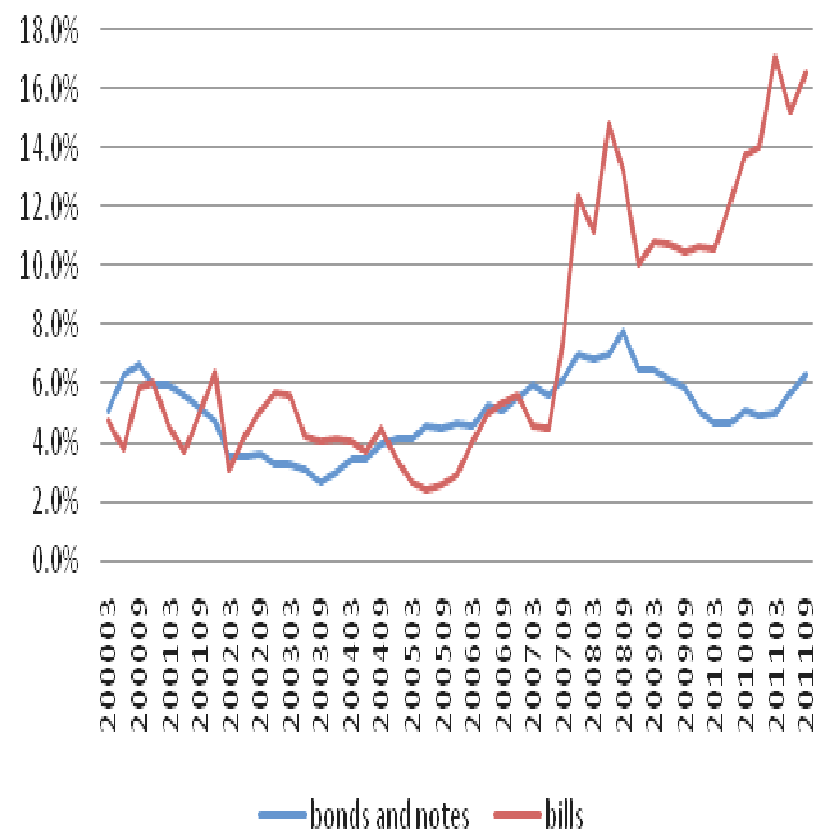
- 고령화된 경제대국
- 아시아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수출과 기술이전의 축
- 재정 건전성 확보 과제

Trends in Japanese debt

Government Debt to GDP Ratios,
2000-2011



Ratio of Foreign Holders
in Japanese Government Debt, 2000-2011


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위상

- **일인당 소득 증가에는 긍정적 요인**
 - 새로운 시장의 확대 (중산층 소비시장), 동일한 문화
 - 에너지 등 자원가격상승 – 전세계 공통된 문제
- **국제적 위상은 총소득에도 의존**
 - 다자외교 체제에서 네덜란드, 싱가포르 등 강소국의 역할
 - 중국, 일본의 중간자적 역할의 종말
 - 다자외교에서의 생존전략 시스템 전환 필요
 - 북한개방 및 통일한국의 중요성
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경제 I

- **Global Supply Chain의 변화**
 - Factory Asia에서 소비의 축으로서 Asia
 - Local Distribution & Production으로의 trend 변화에 대응
 - 선진국의 제조업 재건 가능성에 대비 (고용 증가가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)
- **Multi-polar World는 아시아 만을 의미하지 않음**
 - Africa의 등장
 - 자원 수출국으로서 남미의 성장 잠재력 제고
 - 아시아 역내 국가간 격차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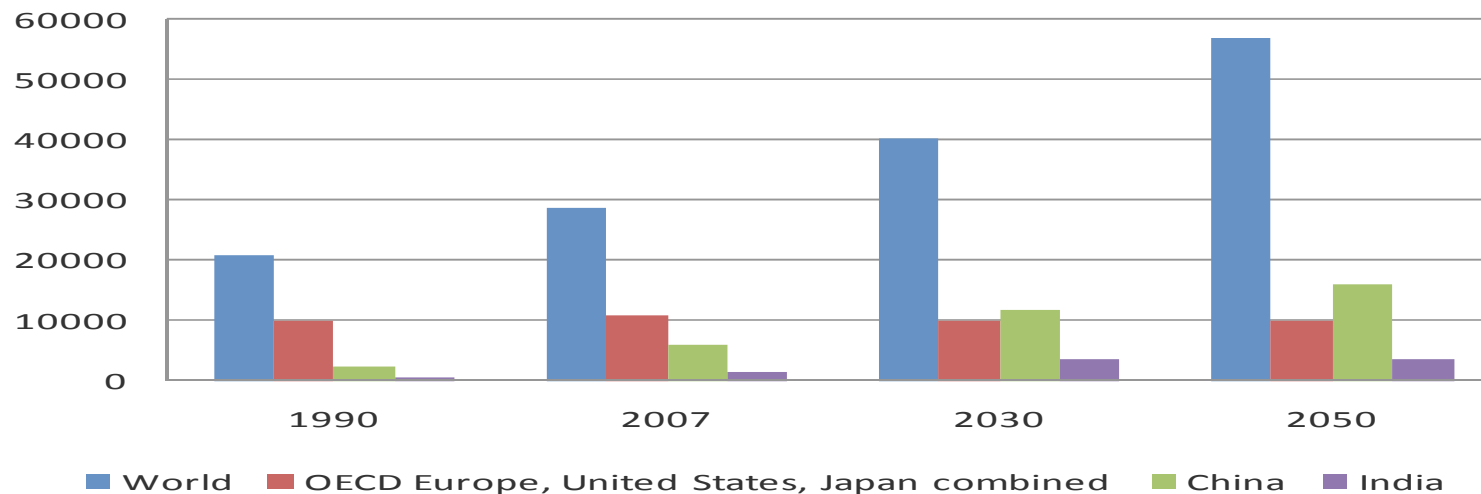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경제 II

- **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심화: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**
 -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(의료, 관광, 교육 ..)
 - 제조업, 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 산업
(네덜란드의 water industry service, 한국의 통신기술 서비스)
 - Soft 산업의 경쟁력 강화: entertainment, contents..
 - 한국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아시아 권의 수요
- **고학력 사회: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수출해야**
 - 국내 소득불평등 문제의 해결 및 고학력 고용기회 확대
 - 아시아권에 대한 진출: 비개방적 문화, 불투명한 지배구조 극복 위한 외국어 교육,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
 -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
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경제 III

- “Brown Growth”에서 “Green Growth”로의 전환
 - 불가피한 선택 (전세계 자원가격 상승은 불가피)
 - 수요억제 정책없이 해결 불가능 (에너지 가격 현실화)
 - Environment Protectionism의 강화 / leapfrogging의 가능성
 - 1, 2차 oil shock후 일본경제 체제 전환의 교훈

Energy Related Carbon Emissions (MT)


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경제 I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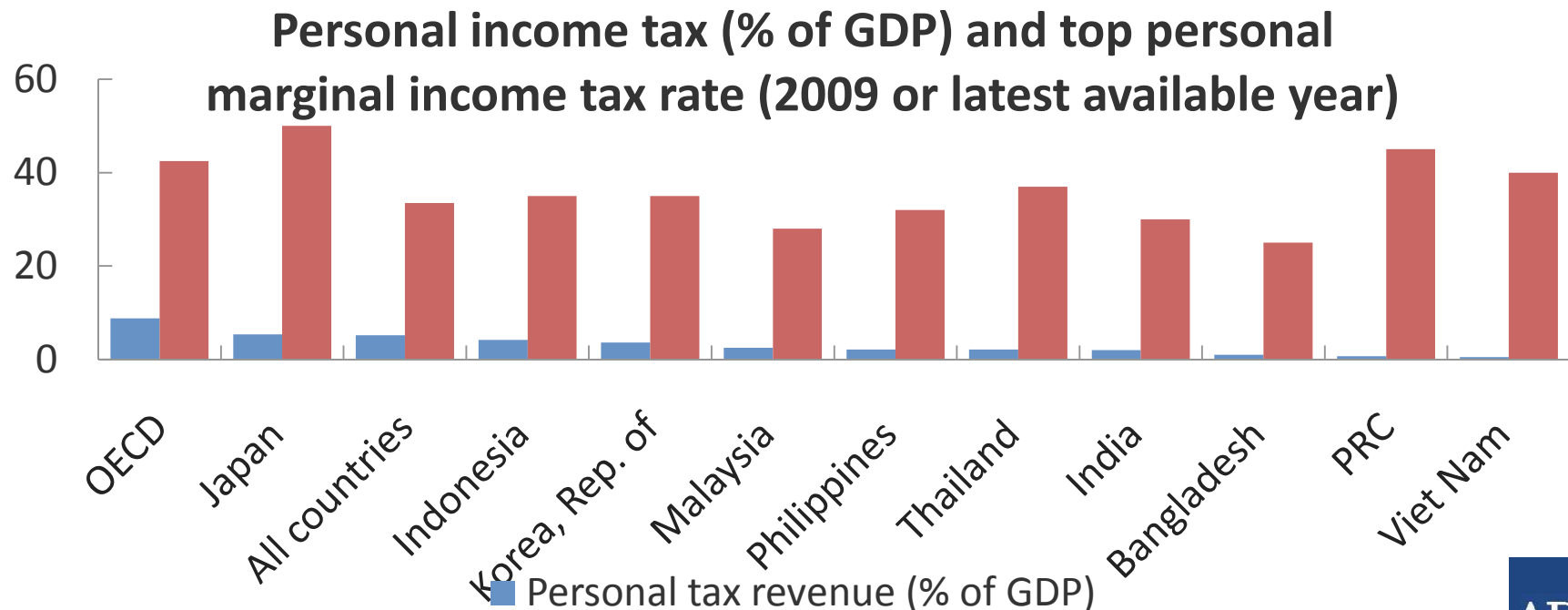
-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

- Global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, 그러나..
- High Risk 산업 진출을 수반한 위험분산 필요 (비은행기관)
- 아시아 각국의 실물경제 통합과 함께 선진금융기관으로의 중개 서비스 의존도 및 dollar 의존도 강화
- 금융산업은 단순한 실물지원 이상의 산업 (정보집중)
- 결제통화 다변화: 아시아 경제 안정성을 위한 공통 과제
- 중국 금융산업의 급팽창에 대한 대응
- 아시아 저개발국의 금융시장 성장 가능성

아시아의 부상과 한국경제 V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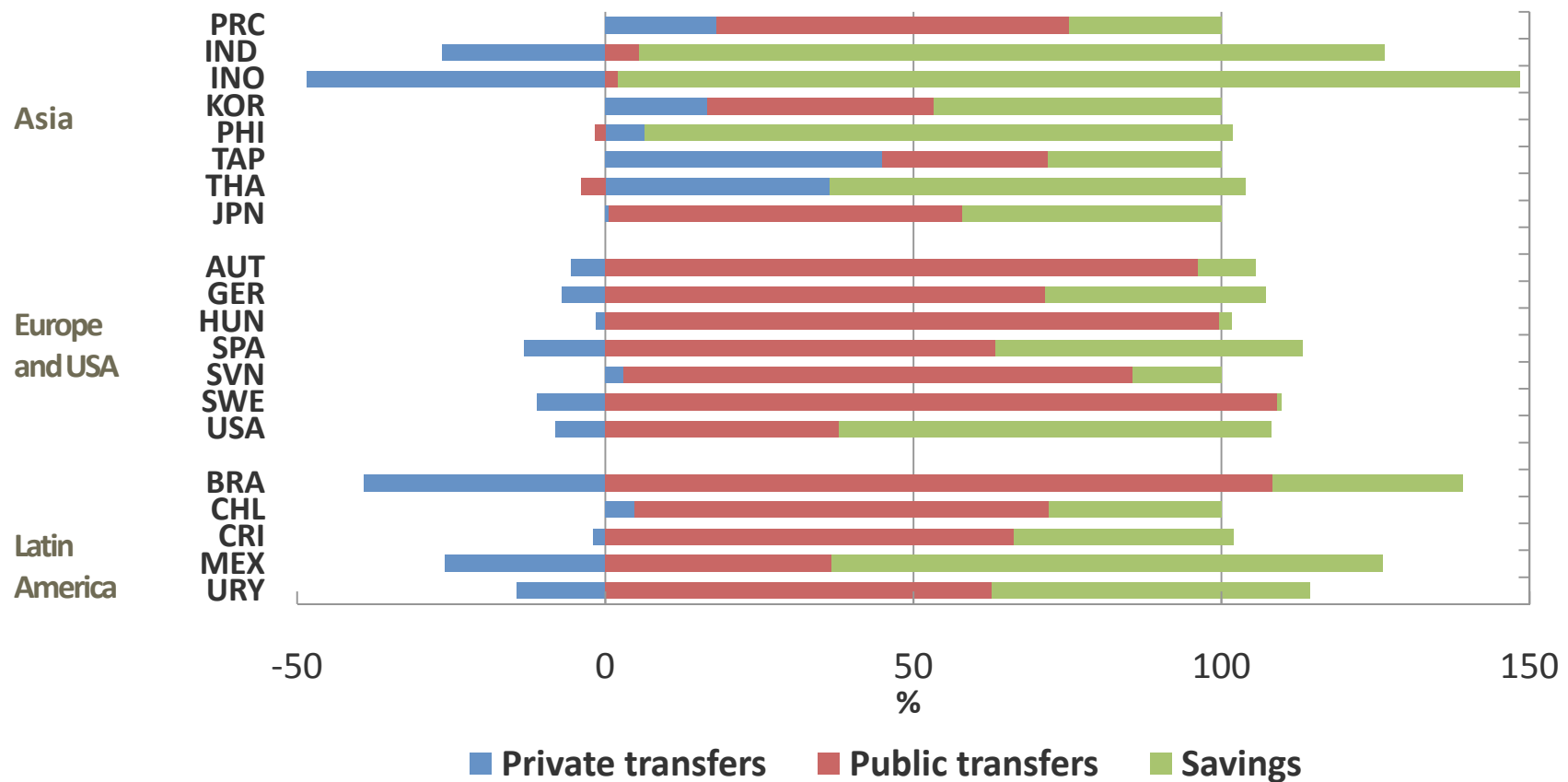
•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: 아시아의 공통된 현상

- 재정건전성의 뒷면: 불충분한 social safety nets
- 낮은 조세수입, 낮은 사회적 지출
-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자만할 수 없는 상황



Family support is declining in Asia, but public transfers are underdeveloped

Support system for people ages 65 and above, selected economies



Thank you!

For more
information, please
contact
crhee@adb.org

